

# 1. 政府關聯 施策

## ④ 北方 投資 進出 節次 改正

-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민간기업의 對북방경제협력사업 개정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업체들의 北方지역에 대한 연간 투자규모가 지난 ‘88년에는 해외총투자액가운데 1%만을 차지했으나 지난 해에는 4.5%로 증가했으며 그 형태도 자원개발, 해외건설수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북방경제정책실무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투자규모한도를 1백만 달러이상에서 2백만달러이상으로 상향조정.
- 이와함께 지금까지 국내업체가 북방지역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후 15일이내에 사업계획서를 IPECK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주무부처에 사업성검토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IPECK의 경유단계를 생략, 業體가 투자의향서체결 후 바로 商工部, 財務部 등 주무부처의 사업성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民間企業의 北方經濟協力事業 지침이 적용되는 북방지역국가는 소련, 중국, 베트남, 알바니아, 쿠바, 캄보디아, 라오스 등 7個國임.
- 이번 지침개정으로 달라지는 북방투자진출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 야    | 종 전   | 개 정  |
|--------|---|--|
| 투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백만달러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계약 체결→한국은행 허가절차</li> </ul> </li> <li>- 1백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향서체결→15일 이내 IPECK 접수 → 주무부처 검토→30일 이내 북방경제정책실무위 상정심의 업체통보→다음절차는 1백만달러 이하 사업과 동일</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백만달러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li>- 2백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향서체결→15일 이내 주무부처에 제출→좌 동→다음절차는 2백만달러 이하 사업과 동일</li> </ul> </li> </ul>                             |
| 해외자원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백만달러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향서체결→주무부처 신고 →본계약 체결→자원개발사업 허가절차</li> </ul> </li> <li>- 1백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향서체결 → 15일 이내 주무부처신고 → 30일 이내 북방경제정책실무위 상정심의 →업체통보 → 다음절차는 1백만달러 이하와 동일</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백만달러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li>- 2백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li> <li>.....</li> <li>.....</li> <li>..... → 다음절차는 2백만달러 이하와 동일</li> </ul> </li> </ul> |

#### ◆ 商工部, 有望中小企業 3단계 분류 選定

- 商工部는 현재의 有望中小企業 발굴 지원제도를 고쳐 유망중소기업을 有望小企業, 有望輸出企業, 有望技術企業으로 분류 選定하여 특성에 맞는 支援을 펴나가기로 함.
- 따라서, 有望小企業은 종업원 50名이하의 지방특화산업체와 생산현장기반 기술업체,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기계류 국산화 개발대상품목 생산업체,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체 가운데 매년 300개씩 선정하고 有望輸出企業은 직수출실적 100만\$ 이상업체, 직수출실적 50만\$ 이상으로 固有商品 輸出比重이 높거나 國際規格을 획득한 업체, 앞으로 2~3년 집중지원으로 수출비중을 賣出額의 50% 이상으로 向上시킬 수 있는 업체 가운데 매년 200개씩을 선정할 계획이며 技術先進化企業 육성제도를 통합, 有望技術企業 발굴제도로 고쳐 실시하기로 함.
- 이에 따라 有望小企業에는 金融機關의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보증을 우선해주며 구조조정기금 가운데 소기업자금('91년 100억원) 및 공정개선자금('91년 550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經營과 技術指導事業을 실시하고 有望輸出企業에는 海外市場 개척단 파견에 우선 참여토록 함은 물론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과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 시장개척자금 등 금융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有望技術企業에는 종합적인 技術指導를 실시할 計劃임.

#### ◆ 商工部, 工業用地에 관한 情報센터 설립

- 商工部는 공업용지에 대한 情報不足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 해소를 위해 大韓商工會議所내에 '공업입지센터'를 설립, 앞으로 기업과의 相談을 통해 적정공업용지를 알선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공업용지 확보를 지원

하고 각종 調査資料를 정부에 제공해 公業입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데 主要業務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음.

〈公業입지 정보제공 및 상담 알선〉

- 상담실 운영을 통한 需要業體에 적정한 공장용지 알선
- 지역별 公業입지 現況 및 供給與件 등 안내책자 발간 배포
- 工場設立節次 및 工業立地 관련 법규해설집 발간 배포

〈公業입지 관련자료 수집, 분석, 축적〉

- 業種別·地域別·時期別 公業입지 수요 조사
- 公業단지 조성현황과 地域別·時期別 公業입지 공급계획 조사

〈公業입지 政策樹立을 위한 업계 애로사항 파악, 건의〉

- 工場設立 관련 애로사항
- 工業立地 관련 制度改善
- 도로, 항만, 公業용수 등 社會간접시설 이용실태 및 문제점

## 2. 會員社 및 振興會 動靜

◆ 美 OKLAHOMA 商議 국제사업개발국장, 本 振興會 방문

- 美 OKLAHOMA 상공회의소 국제사업개발국장의 1명이 本 振興會를 방문하여 美 오크라호마의 投資環境과 經濟現況 등을 설명하고 우리 重電機產業에 대한 관심표명과 함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美側은 앞으로 오크라호마에 관심있는 우리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支援과 相談을 해 주겠다고 약속.

○ 관심있는 業體에서는 아래住所로 연락하거나 本 振興會 國際課로 문의

— 연락처 : Economic Development

Metropolitan Tulsa Chamber of Commerce

616 South Boston, Tulsa, OK 74119-1298

**Mr. T. A. Sembe**

Tel : (918) 585-1201 · (800) 624-6822

Fax : (918) 585-8386

◆ 電機工業부문 技術開發 支援 說明會 개최

○ 製造業 競爭力強化 對策의 일환으로 電機工業부문에 대한 技術開發 支援計劃이 상공부, 연구기관, 단체, 업계 등에서 발굴한 技術開發 과제를 대상으로 '91년도 支援요령이 確定, 告示됨에 따라 韓國電機工業振興會에서는 상공부와 공동으로 韓電支援 R & D 資金 200 억원을 포함한 '91년도 電機工業部門 技術개발 지원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說明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

— 日 時 : '91. 4. 29 (月) 14:00

— 場 所 : KOEX 본관 4층 대회의실

— 參席範圍 : 전기공업관련단체, 업체 임·직원

\* 說明회 자료는 당일 說明회장에서 배포

○ 자세한 內容은 本 振興會 振興課 (Tel : 704-1361) 로 문의

◇ 金星產電(株), 인천시 교통관제센터 설치

- 金星產電(株) (代表: 李喜鍾)는 도심내 차량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전자감응식 도로교통관제시스템을 순수 國內技術力으로 인천직할시에 설치, 완공함으로써 교통정체 해소, 교통사고 및 차량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등 도시의 교통난 및 교통공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됨.
- 同社는 지난 '88년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구시에 완전 國產化 된 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는데 이번에 설치된 것은 보다 고기능화 된 시스템으로서 교차로 간격 및 신호표시방식 등 국내의 도로와 교통제어 실정을 고려, 신호주기의 조절 등이 가능토록 한 한국형 종합 교통관제시스템임.

◇ 現代重電機(株), 勞使 小委員會 構成

- 現代重電機(株) (代表: 金柱鎔)는 대화를 통한 일체감의 조성과 원만한 노사관계도모를 위해 배전반 생산부, 회전기 설계부 등 각 공장 및 부서단위로 11개의 勞使 小委員會를 구성.
- 勞使 소위원회는 해결가능한 안건은 자체해결하고 자체해결이 어려운 안건은 본 회의에 상정함으로써 부서 자체의 현안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處理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되는데 同 委員會는 담당중역이 맡게되는 위원장 1名,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각각 1名씩 맡게되는 부위원장 2名, 그리고 간사 1名과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으로 구성되어 있음

◇ 極東電線工業(株), 절연전선 등 KS표시 허가 획득

- 極東電線工業(株) (代表: 李滢鍾)는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절연전선 및 케이블 등에 대한 KS표시 허가를 '91. 4. 8 획득.

○ KS표시허가 획득 내용

| 허가번호     | 규격번호      | 규격명                 | 종류, 등급 또는 호칭   |
|----------|-----------|---------------------|--|
| 제 562 호  | KS C 3302 | 600 V 비닐절연전선        | 단선 0.8 ~ 3.2 mm<br>연선 2.0 ~ 500 mm <sup>2</sup>  |
| 제 8295 호 | KS C 3828 | 600 V 2종 비닐절연전선     | 단선 1.2 ~ 5.0 mm<br>연선 0.9 ~ 200 mm <sup>2</sup>  |
| 제 8296 호 | KS C 3330 | 제이용케이블              | CVV원형연선<br>2 C - 4 C × 1.25 - 22 mm <sup>2</sup><br>5 C - 6 C × 1.25 - 14 mm <sup>2</sup><br>7 C, 8 C, 10 C, 12 C × 1.25 - 8.0 mm <sup>2</sup><br>15 C, 20 C × 1.25 - 5.5 mm <sup>2</sup><br>30 C × 1.25 - 3.5 mm <sup>2</sup> |
| 제 8297 호 | KS C 3602 | 600 V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 2 C - 4 C × 0.75 - 14 mm <sup>2</sup>  |
| 제 8298 호 | KS C 3611 | 600 V 폴리에틸렌케이블      | 600 V EV원형연선<br>2.0 - 500 mm <sup>2</sup> × 1 C<br>2.0 - 2.5   |

◆ 製鐵電氣콘트롤(株), 가속도센서 工場준공

- 製鐵電氣콘트롤(株) (代表: 金基洪)는 32 억원을 投資, 머신체커용 가속도 센서 및 압전세라믹, 설비진단시스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센서공장을 준공하여 연간 4 만개를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200 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
- 가속도센서는 대형설비의 고장 유무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설비진단시스

템으로서 지금까지 전량 日本으로부터 輸入해 왔던 것인데 同社는 이번 가속도센서 개발을 계기로 '92년부터 '93년까지 30억원을 투자, 소음측정계 등 환경진단시스템을 개발할 計劃이며 '94년에는 의료기기용센서 등 각종 인체진단시스템도 개발, 事業領域을 확장할 예정.

- 한편, 同社의 본사 및 공장 電話番號가 기존 72-1213에서 80-1114로 변경됨.

#### ⊕ (株)泰進電氣, 生産설비 量産체제로 전환

- UPS, AVR 전문제조업체인 (株)泰進電氣(代表:李浩哲)는 그동안 주문에 의해 제품을 제작한 결과 납기단축 및 對顧客 서비스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生産設備를 量産體制로 전환기로 함.
- 이를 위해 5월말까지 5억원을 투입, UPS, AVR의 생산라인을 自動化 하고 현재 월간 200대의 UPS생산능력을 500대로 늘릴 계획이며 AVR의 시리즈화를 이룩, 단상 20 KVA, 삼상 10 KVA까지 계획 생산 판매체제를 구축할 예정.

#### ⊕ 曉星重工業(株), 電氣式 간이로봇 開發

- 曉星重工業(株)(代表:金仁煥)는 최근 電氣式 간이 로봇(모델명:하이-맨)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감.
-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電氣·電子回路와 4절 링크를 이용, 작업자가 취급하는 중량물을 무중력상태에서 손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중량물의 무게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作業能率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한 自動化 機械임.



### 3. 韓電 消息

#### ◆ PT, 外產대체 계획

- 韓國電力公社는 지금까지 國產으로 사용돼온 變電所 MCSG용 PT (계기용 변압기)가 신뢰성 저하 및 대형 변전사고 위험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신규수요 뿐만아니라 기 보급된 PT도 모두 外產으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처럼 國產 PT를 外產으로 대체기로 한 것은 '89년 8월 및 '90년 11월 발생한 서울 月溪變電所의 변전사고원인이 MCSG용 PT의 불량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月溪變電所 事故以後 國產 PT 12대와 日本 토코社의 PT 1대를 성능시험한 결과 國產 PT의 절연성능이 國際基準値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韓電은 이미 보급된 國產 PT의 교체분 975대와 신규수요분 74대 등 총 1,049대의 MCSG용 PT에 대한 외자구매입찰공고를 내고 현재 입찰안내서를 외국메이커에 교부중인데 韓電에서는 현재의 PT구매방법에 問題點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구매규격을 개정, 국내업체의 개발을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으며 국내메이커들이 제품의 品質向上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 ◆ 熱併合 발전소 主機器, 美WH社에 落札

- 韓國電力公社는 부천·일산 熱併合發電所 건설을 위한 主機器部門 국제입찰에서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WH)社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
- 韓電은 스위스의 ABB,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 및 웨스팅 하우스,

독일의 KWU 4 個社에 입찰안내서를 발급하여 ABB, GE, WH社가 참여한 이번 입찰에서 技術性和 經濟性이 우수한 웨스팅 하우스社의 응찰 기준을 선정함.

## 4. 國內外 情報 및 統計

### ⊕ 美·日 극초소형모터 開發에 積極 投資

- 美國과 日本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극초소형모터연구에 연간 1억~2억\$를 投資, 開發 및 實用化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중인 극초소형모터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직경 130 마이크로(1 마이크로는 1백만분의 1 m) 정도의 크기로 磁氣的인 기능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모터와는 달리 정전기를 이용, 작동시키는 것임.
- 극초소형모터 개발 및 응용연구는 최첨단 기술분야로 반도체 가공분야에서의 표면처리기술을 원용, 지난 3~4년간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으며 앞으로 의학분야를 비롯 광섬유연결 측정장치 등 응용여하에 따라서는 활용도가 매우 큰 것으로 評價됨.
- 美國은 이번 開發을 위하여 국립과학재단(NSF)의 후원아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MIT공대 등에서 關聯研究를 진행중이며 연간 7천만~1억\$상당을 投資하고 있고, 日本은 향후 10년간 매년 2억\$를 극초소형모터 개발에 投資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짐.

## ◇ 美國의 原子力 政策방향

- 美國에서는 최근 核力발전 被害의 확대와 電力供給 부족예상, 걸프사태를 통해서 나타난 석유의존도 감축 및 에너지 다변화의 필요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原子力發電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原子力の 전력공급비중을 보면 '78년 이후 新規發電設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1.4%에서 '90. 8月 기준 20.5% (총 전력공급량 1,892 TWH, 원자력발전량 388 TWH)로 증대되었는데 이는 가동율면에서 '79년 58.5%에서 66.8%로 향상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2000년에는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美 에너지部는 2010년까지 電力需要 증가에 대비 25만MW의 원자력발전설비를 추가할 계획인데 同 전략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인·허가 절차의 簡素化 및 신규원전발주의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提高시키고 '95년까지 安全性 및 經濟性이 향상된 경수로 및 개량형 경수로 4기의 설치를 추진하며 '80년대 이후 원자력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소로 대두된 고준위 핵폐기물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2010년까지 Nevada주에 위치한 Yucca Mountain에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설치를 고려중인데 향후 美國의 原子力政策은 市場原理에 입각, 規制로부터 脫規制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 韓·日 原子力 安全 協力 合意

- 科學技術處와 日本 通産省 資源에너지廳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한 동향과 認·許可, 檢査, 기준의 策定을 포함한 안전규제 및 개선대책, 運轉經驗, 事故·故障에 대한 敎育 등에 대하여 연 1회 情報交換會議을 개최하고 技術專門家의 교류와 公開情報의 交換 등을 실시기로 合意.

- 技術者 交流의 경우 우리측에서는 耐震技術, 휴먼팩터, 經年劣化 대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公開情報의 交換은 연 4 회 정도 運轉事故 및 故障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교환할 計劃.

#### ◇ 모로코, 對韓 通信케이블 發注 확정

- 모로코 제신청은 그동안 최종 確定段階에서 망설여오던 1,200 만\$ 규모의 韓國產 通信케이블發注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90년 처음으로 프랑스가 장악해오던 모로코의 공공분야 진출을 시도, World Bank 자금으로 발주예정인 通信케이블 국제입찰분야에서 프랑스업체보다 양질의 제품을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낙찰에 성공했으나 케이블 연결부품(Co-connector) 문제로 지연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최종 發注에 성공한 것임.
- 현재 모로코의 通信케이블은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Telecom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번 韓國產 通信케이블 진출을 시발로 앞으로 通信케이블 분야에서만 1억~2억\$ 정도 추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電話通信網 現代化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通信 및 電線케이블에 대한 需要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豫想.

#### ◇ M & A 規制 국제규칙 마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企業이 합병·매수(M & A)를 통해 여러 나라의 市場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독점금지관련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합병신청에 필요한 事業內容에 관한 각국 공통의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국 독점금지당국의 調査協力 및 審査協力強化 등을 골자로 하는 國際規則

制定에 착수했다고 發表.

- 이 규칙은 최근 국경을 넘는 대규모 기업합병이 여러나라에 걸치는 독점기업을 만들어 競爭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 規則이 제정되면 개별 합병·매수 신청시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에 관한 심사기준을 각국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며 관련된 수개국의 독점금지 당국이 資料提供 및 調查協力을 하게 됨.
- 美國과 EC사이에는 합병규제의 통일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OECD는 오는 6월 각료 이사회에서 각국 競爭政策의 조화에 관해 협의를 거친후 수개월내로 競爭政策委員會에서 구체적인 國際規則 制定을 협의할 예정임.
- 한편, 우리나라도 OECD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OECD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정부각부처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OECD 調查團을 파견, OECD산하 주요위원회의 性格 및 活動狀況, 해당위원회 가입시 준수해야 할 事項 등을 면밀히 調查, 把握키로 함.

#### ◆ 對北方 투자 擴大 가속화

- 동구권국가들의 經濟改革 및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關係改善 등에 힘입어 국내기업들의 북방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이 지난해부터 크게 활기를 띠기 시작  
지난 '85년 이후 '91. 2월말 현재까지 국내기업들의 北方地域國家들에 대한 總投資件數 및 投資總額은 86건에 14억 8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分析.
- 특히 中國의 경우 금년 2월말 현재 投資進出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 9건, 7백 83만\$이고 3월말 현재 북방실무위원회와 해외투자사업심의회에서 투자진출 타당성을 심의중인 프로젝트는 17건, 1천 7백 82만달러

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기업들의 對중국투자진출이 이같은 추세를 지속할 경우 금년중 國內企業들의 對중국 投資進出實績은 지난해의 41건, 5천 6백 만\$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

○ 國內企業들의 對북방지역 投資 現況

(單位：千\$)

| 區 分   | '90    |     | '91(1-2月) |     | 累 計     |     |
|-------|--------|-----|-----------|-----|---------|-----|
|       | 金 額    | 件 數 | 金 額       | 件 數 | 金 額     | 件 數 |
| 中 國   | 56,178 | 41  | 7,831     | 9   | 89,615  | 75  |
| 蘇 聯   | 11,181 | 4   | 239       | 1   | 11,900  | 7   |
| 형 가 리 | -      | -   | 150       | 1   | 46,610  | 3   |
| 폴 란 드 | 475    | 1   | -         | -   | 475     | 1   |
| 합 計   | 67,834 | 46  | 8,220     | 11  | 148,600 | 86  |

◇ '91주요 非鐵金屬 原資材 價格 展望

- 주요 비철금속 원자재의 供給業體 및 關聯 專門家들은 수요부진 및 초과공급 과 비철금속의 價格變動 주기를 고려할 때 하향추세에 있다는 分析下에 '91 년도 價格을 '90년 價格水準以下에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

○ 主要 非鐵金屬 原資材 價格現況

(單位：US\$ / 파운드)

| 區    | 分                       | '88  | '89  | '90  | '91(전망) |
|------|-------------------------|------|------|------|---------|
| 알루미늄 | Primary ingot           | 1.13 | 0.89 | 0.75 | 0.75    |
|      | Secondary ingot         | 0.99 | 0.90 | 0.76 | 0.76    |
|      | Common alloy 3030 sheet | 1.41 | 1.87 | 1.17 | 1.34    |
|      | Alloy 6061 extrusions   | 1.53 | 1.33 | 1.13 | 0.99    |
| 銅    | Copper/cathode          | 1.21 | 1.31 | 1.23 | 0.90    |
|      | Copper/wirebar          | 1.23 | 1.36 | 1.29 | 1.05    |
|      | Copper/sheet            | 1.90 | 2.05 | 1.99 | 1.73    |
| 아연   | Zinc/high-grade         | 0.61 | 0.82 | 0.75 | 0.55    |
|      | Zinc/die-cast alloy #3  | 0.68 | 0.91 | 0.86 | 0.64    |
|      | Lead/common pig         | 0.37 | 0.40 | 0.46 | 0.38    |
| 니켈   | Nickel/melting cathode  | 6.49 | 6.05 | 4.11 | 3.75    |
| 네마슘  | Magnesium/ingot         | 1.56 | 1.63 | 1.61 | 1.38    |
| 朱錫   | Tin/alloyers grade      | 4.41 | 5.19 | 3.85 | 3.50    |

\* 價格은 연 평균치임.

◆ 蘇聯의 主要 重電機器 生産業體 案內

| 업 체 명   | 주 요 생 산 품 목  | 연 락 처   |
|---|--|---|
| The SOVDIELECT-<br>RIK Firm of the<br>Dielectrik RPA,<br>Mosco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ca-containing insulating materials and mica paper</li> <li>• laminated sheet and wound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li> <li>• foil-covered dielectrics</li> <li>• section glass-reinforced plastic</li> <li>• flexible electrical insulating sleeves</li> <li>• insulating films</li> <li>• varnished fabric</li> </ul> | SOVDIELECTRIK<br>FTF<br>12 Ul. Krasnokaz-<br>armennaya, 11250<br>Moscow, USSR.<br>Tel : 361-90-36,<br>362-05-77<br>Telex : 411390<br>Metr SU.<br>Director Vladimir<br>Fedorovich Sha-<br>monin. |
| The RELEEXPORT<br>Firm of the Rele<br>Avtomatika PA,<br>Kie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lays ;<br/>thermal, time-Relay, power,<br/>protective, current,<br/>voltage, pilot, different-<br/>ial and other starters<br/>push-button switches</li> <li>• medical computerized<br/>tomographs</li> </ul>  | RELEEXPORT FTF<br>6 Bul. Ivana Le-<br>pase, 252180 Kiev,<br>USSR.<br>Tel : 488-31-00<br>Telex : 131361<br>Topol SU.<br>Director Igor<br>Grigorievich Se-<br>menenko.                            |



| 업 체 명   | 주 요 생 산 품 목  | 연 락 처  |
|---|--|--|
| <p>The ZAPOROZHTRANSFORMATOR</p> <p>Firm of the Zaporozhtransformator PA, Zaporozhe</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30 kVA to 1,250 MVA three-phase power transformers and up to 533 MVA single-phase transformers for rated voltages of 10 to 1,150 V</li> <li>• single-phase converter power transformers rated up to 320 MVA</li> <li>• high-voltage current and voltage instrument transformers in 66 to 500 kV voltage ratings for use in networks of 50 and 60 Hz frequency</li> <li>• smoothing reactors for D.C. power transmission lines rated up to 750 kV (50 and 60Hz networks)</li> <li>• 6, 10, 35 kV factory-assembled switchgear with small volume oil circuit breakers and vacuum circuit breakers</li> <li>• electric station busways for all generator voltages</li> <li>• spare parts</li> </ul> | <p>ZAPOROZHTRANSFORMATOF FTF</p> <p>3 Dnipropetrovskoye Shosse,</p> <p>330600 Zaporozhe, USSR.</p> <p>Tel : 52-72-43</p> <p>Telex : 131375</p> <p>Zalp SU.</p> <p>Director Bogdan Pavlovich Maslovets.</p> |

| 업 체 명  | 주 요 생 산 품 목   | 연 락 처   |
|--|---|---|
| <p>The DONIMPEX Firm of the Explosion-Proof Electrical Equipment RPA Donetsk</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osion-proof high and low-voltage rotating electrical machines</li> <li>• single transformers and complete substations</li> <li>• high and low-voltage equipment</li> <li>• electric lighting equipment</li> <li>• instrumentation and automatic control equipment</li> <li>• hoisting and conveying equipment</li> </ul> | <p>17 UI. 50 Gvardeiskaya Diviziya, 340052 Donetsk, USSR.</p> <p>Tel : in Donetsk-94-10-73<br/>in Moscow-487-31-24</p> <p>Telex : 411003 Soel SU (temporary)</p> <p>Director Sergei Dmitrievich Sukhanov.</p> |
| <p>The ZAKARPATELECTRO Firm of the Elektrodvigatel Works, Uzhgorod</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r 56), (Air 63), (Air 71) Electric motors</li> </ul>  | <p>ZAKARPATELECTOR FTF</p> <p>1 UI. Krasnodontsev, 294000 Uzhgorod, USSR.</p> <p>Tel : 353-40</p> <p>Director Vladimir Nikolaevich Tingaev.</p>   |

| 업 체 명  | 주 요 생 산 품 목   | 연 락 처  |
|--|---|--|
| The ROTOR Firm<br>of the Rotor RPA,<br>Cherkass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 600 F4, SM 600 F2,<br/>TEMP-1 machine tools</li> <li>• LTU=16, -123, -250, -20 ;<br/>LTK-2 laser units</li> <li>• linear electric motors</li> <li>• complete sets of equipment<br/>for Nokia-SELTO robotic<br/>complexes</li> <li>• EMSH 30/100-3 electric<br/>meat-choppers</li> </ul> | ROTOR FTF<br>8 UI. Sumgaitsk-<br>aya, 257029 Cher-<br>kassy, USSR.<br>Tel : in Cherkassy<br>-66-97-07<br>in Moscow-<br>438-64-47<br>(Authorized<br>agent V.A.<br>Fedorishin)<br>Director Victor<br>Vilenovich Chu-<br>dnovsky. |

## 5. 世界 經濟·貿易 短信

### 〈世 界 經 濟〉

- 오는 4월 28일의 G-7 회의에서는 달러화 강세에 대한 對處方案을 논의하기 보다는 世界經濟 현안에 논의해야할 것이라는 意見(WSJ, 4/8)

### 〈美 國 經 濟〉

- 美國經濟는 높은 失業率 때문에 경기회복 기대 어려워(ID, 4/5)

- Greenspan 美聯準理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는 意見을 수용하여, 단기금리를 0.25 %만 인하하기로 결정 (WSJ, 4/5)
- 외국 投資家들의 對美投資에 등돌림으로 미국경기 회복에 걸림돌(WSJ, 4/4)
- 올해 美國企業의 海外投資는 지난 3년간 평균증가율 19 %를 훨씬 밑도는 6 %만 증가할 듯 (ID, 4/5)
- 부시대통령은 미·멕시코 自由貿易協定の 의회인준을 받기 위해 노조와 투쟁할 것을 천명 (NYT, 4/8)
- 미·멕시코간 自由貿易協定은 미국의 실업야기, 미제조업체의 멕시코 이전 및 미국의 環境, 保健 기준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ID, 4/4)
- 미국 消費者의 일본상품 선호와 제조업체의 일본상품 수입배격으로 미통상정책의 2중성을 야기 (NYT, 4/4)
- Aspin 미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동맹국들의 걸프전비分擔額은 공정한 額數라고 보고 (WP, 4/8)
- 미 G.E社는 새로운 모델 7A6 공냉 발전기 25세트를 7천 5백만불에 수주 계약 (EL, VOL 3)
- 미 EMPROS SYSTEM INT'L社는 멕시코 國營電力會社에 배전시스템을 3백 20만불에 納品하기로 계약 (EL, VOL 3)
- 美貿易代表部 (USTR)는 1991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韓國의 정부조달과 관련, 韓國政府는 여전히 國產品調達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購買時 30 ~ 50 % 상당액의 外國製品을 구매해 줄것을 요구 (주경, 3.30)

<日本 및 아시아 經濟>

- 가이후 일수상 방미시 양국간 通商問題 및 關係改善에 대해 협의할 듯 (FT, 4/4)
- 모스베커 미상무장관은 美·日 통상관계 나아지고 있다고 지적 (ID, 4/4)
- 日本企業들은 美國內의 대일본 이미지 提高에 努力 (ID, 4/8)

-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일본의 가이후수상은 양국간의 근본적인 동맹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兩國關係를 改善시킬 수 있다고 同意(NYT, 4/5)
- 미국의 무기전문가들은 일본은 차세대 무기 중심의 輸出國이 될 것이라고 展望(WP, 4/7)
- 일본정부는 말레이시아의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 형성제안에 냉담한 반응 보여(JOC, 4/7)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국가들은 고성장 경제삼각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주변국들의 開發 및 雇傭增大에 도움(FT, 4/5)
- 일본 SUMITOMO 전기회사는 캐나다 HYDRO QUEBEC社로부터 800KV POLYPROPYLENE LAMINATED PAPER 입찰에 성공(EL, VOL3)

#### < EC 經濟 >

- 콜 독일수상은 失業에 시달리는 구 동독지역 주민들에 인내를 호소(WP, 4/8)
- 34개 회원국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동서유럽간 협력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에 합의(WP, 4/4)
- 英國 THOMPSON 밸브회사는 캐나다핵발전소에 250,000파운드의 밸브공급 수주계약(EL, VOL3)
- 英國 DAVY MCKEE 會社는 韓國 광양, 포항제철(株)에 설치되는 45 KVA 삼상 UPS 시스템을 76,000 파운드에 納品하기로 계약(EL, VOL3)

#### < 蘇聯 및 동구경제 >

- 蘇聯 財務長官, 중앙은행 총재 및 최고회의 예산, 경제기획 위원장 등 蘇聯의 金融專門家들은 경제 과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련은 공화국들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對處方案을 취할 것을 고르바초프대통령에 촉구(FT, 4/4)

- 經濟改革 500 일안의 주요 저자인 Yavinsky 전러시아공화국 부총리는 현재 蘇聯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FT, 4/4)
- 蘇聯의 가격제도 개혁조치는 物價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충격 (NYT, 4/7)
- 유럽 經濟學者들은 루블화는 앞으로 수개월간 계속 하락할 것이며, 이는 蘇聯 經濟 안정 및 海外投資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JOC, 4/7)
- 유고는 민족분규로 인한 政治不安이 장기화되면서 外國으로부터 자본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외채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음 (주경, 3.30)
- 루마니아 國立銀行은 레우화의 평가절하 및 가격개혁 실시 (주경, 3.30)
- 체코는 가격조치화 이후 國內需要가 급격히 감소하고 國營企業體의 도산이 급증하는 등 경제사정이 계속 惡化 (주경, 3.30)

資 料) FT : Financial Times

NYT : New York Times

WSJ : Wall Street Journal

주 경 : 주중해외경제동향

JOC : Journal of Commerce

WP : Washington Post

EL : Electricity International

ID : Investor's Daily

피땀흘려 이론경제 과소비로 무너진다